

취임사



취임사

회고하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이하 총연)가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 대표 기관으로서 충실히 그 소임을 다 하며 해마다 새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온 선배들의 발자취가 어언 23년이라는 연륜이 쌓여 청년기 총연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족한 제가 제19대 총연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무에 양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23년 성장한 총연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압감 보다는 오늘이 있기 까지 지난 18년간 총연의 참모직에 헌신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책임자가 되면서 무엇을 시정하고 무엇을 지속 발전 시켜야 하겠다는 수많은 마음의 다짐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벅찬 계획과 이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인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총연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동포 지도자 여러분!

오늘 18대를 마감하고 19대를 여는 역사적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회장님 여러분의 성원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광활한 미대륙 50개주 원근 각지에서 형제애의 도시 피랄델피아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300여 회원과 동포 지도자 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있기에 총연의 희망찬 장래를 가능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임기간 제가 해야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임기 2년이란 세월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하지만,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저는 7월중 인선위원회로 하여금 대화합과 총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지역 안배 그리고 현직을 고려하되, 총연에 애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수 있는 인사로 임원, 이사 및 분과위원을 구성케 하여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9대 운영방안과 목표를 기초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후 분과별, 부처별로 착실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세번에 걸쳐 회장에 도전했던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극복해 나갈것이며,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수 있도록 총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한 계획수정도 주저하지 않을것이라는 것도 밝혀둡니다.

우선 총연이 해야할 당면 과제는 사무처의 행정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과 사무처의 통신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며, 18대에서 시작한 총연의 Home Page는 계속 발전시키고, 총연이 동포 단체로서 위상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지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총연과 지역한인회와의 현안 문제범을 풀어나가면서 관계개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총연이 미주 한인사회에 대표 기구로 구심점의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본국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 될 때 그 시간을 단축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구적인 노력이라함은, 회장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우리모두가 민족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총연 스스로 동포사회에 모범이 될수 있도록 매사에 솔선하는 분위기로 쇄신하면서 지역 한인회 사업을 지원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한인회는 작은 일이라도 대외 적으로 총연이 모든 한인회를 실질적으로 대표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총연의 창구를 활용하려는 의지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국정부의 한시적 지원 정책이라 함은, 한국정부가 총연을 미주한인동포 대표 기구로 확실한 인식의 전환과 이를 육성 발전 시키겠다는 예산의 지원을 의미 합니다. 그것은 해외동포 550만중 40%에 해당되는 220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인적자원의 측면과 많은 돈의 본국의 송금 실적을 비롯하여 미주 동포들이 경제, 사회, 통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본국에 직, 간접적인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 민족 공동체의 대표 단체로 총연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복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미주동포단체 지원 육성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촉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이래 100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 민족의 역할은 아직도 주류사회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류사회의 주체로 폭 넓은 정치 참여와 소수민족의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타 소수 민족 및 각종 동포단체, 그리고 해외 동포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한민족 공동체 기반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에 헌신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으며, 정기 총연 신문을 발행하여 총연과 지역 한인회의 홍보와 정보 교환에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에서 제시 한대로 적은 성금이지만 \$20,000을 회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한후 회관건립 위원회로 하여금 지속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장 임후보자의 저비용 고능률의 선거를 위한 선거 풍토 개선과 지금까지 문제가된 회칙 조항을 재검토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글로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사업계획이 훌륭하더라도 모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능동적인 참여와 진정한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다행이 저의 단독후보로 이기고 진자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총연사회에 더 큰 반목과 대립이나 마음의 상처를 사전에 막을수 있었으나, 선거기간동안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나 보이지 않는 벽이 동포 사회에 존재 한다면, 오늘 이시간이후부터 모두 털어 버리고 가슴을 열고 화해와 협력의 대열에 동참 해야 하겠으며, “내가 아닌 우리”로써 함께 후세에게 넘겨줄 떳떳한 총연을 건설 하는데 힘을 모아 주실것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호소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동안 총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오늘 임기를 마치는 김길남 회장님과 김광범 이사장 그리고 임원 이사 그리고 이상호 선거 관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그리고 오늘 행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정남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과 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다운 화해와 진정한 협력을 이룩할수 있는 능력있는 민족은, 이땅위에 찬란한 이민 문화를 창조할수 있는 지혜 또한 갖추었다고 확신하면서,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돌 한장한장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평가 할수 있도록 오늘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취임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아담스막 호텔

제19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오영